

#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출품작가 김광수·송재호·유석연씨 선정

문예진흥원은 오는 9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막하는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의 한국관에 참가작가로 건축가 김광수(37) 송재호(41) 유석연(35)씨 등 3명을 선정, 24일 발표했다. 스위스출신의 건축학자 커트 포스터가 총연출을 맡은 올

베니스건축비엔날레는 '비타포스(변용)'를 주제로 9월5일부터 11월7일까지 열린다.

한국관 커미셔너 경기용씨는 "올래는 예년과 달리 40세 안팎의 젊은 건축가들 위주로 출품작가를 선정했다"며 "건축가의 완성품을 전시하는 기존의 전시방법을 탈피, 참여작가들이 공동으로 우리 사회



김광수씨



송재호씨



유석연씨

의 새로운 건축 현상에 대한 분석·해석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은 '방의 도시'란 제목으로, 한국도시 건축에서 일상의 공간인 방이 드러내는 복합적인 사회문화현상을 지목하고 현대건축가가 직면한 도시 건축의 문제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을 발표한다.

신세미기자 soemi@